



무엇이 궁금하십니까?

Q. 농약과 의약품은 어떻게 다릅니까?

A. 모두 사람에 대해 화학물질이 얼마간 생리적 작용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같은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의약품이 기본적으로 인체라는 폐쇄된 환경에 사용되는 것에 반해서 농약은 자연계라는 개방된 상태에서 사용된다는 점이 차이가 있습니다.

의약품이 '사람의 생명'이라는 바꿀 수 없는 것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몇가지의 차이가 나타납니다.

예를들면 의약품은 사람의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사용되기 때문에 그 효과가 가장 중요시되고 가격이 우선시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농약은 농업 생산성을 향상 시키기 위하여 사용되기 때문에 경제성을 도외시할 수 없으며 어느 정도 효과가 있어도 가격이 매우 높거나 사용방법이 매우 까다롭거나 하는 것은 상품으로서 시장에 나올수 없게 됩니다.

○ 부작용이 허용된 폭넓은 의약품

농약은 적용 대상의 유해생물에 대한 효과가 강하면 강할수록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개방된 자연계에서 쓰여지는 것으로 사람이나 재배하고 있는 농작물 등 유해생물 이외의 생물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적은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의약품도 효력을 중요시하는 것은 마찬가지이지만 생명유지라는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는 부작용은 어느정도까지 허용되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강력한 항암제에는 탈모, 간의 기능저하라는 큰 부작용이 있습니다. 에이즈(AIDS)의 치료약에도 강한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사용자가 고도의 훈련을 쌓은 의사이여야 하는 전제가 있습니다. 인체라는 폐쇄계에서 쓰여지는 것 등에서 허용된 것으로 의약품이 농약보다 안전성이 높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역사적으로는 19세기 후반에 합성염료가 발명되었고 20세기초에 2가지 이상의 색으로 나누어 염색하는 연구에서 합성의약품이 발명되었으며 그리고 20세기 중반에 신경치료약의 스크리닝 실험 데이터에서 힌트를 얻어 화학농약이 발명되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친자손(親子孫)의 관계가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사실 세계의 농약을 제조하고 있는 제조회사의 대부분이 일반 화학품이나 의약품도 제조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염료, 의약품, 농약은 같은 원료를 사용하고 같은 공장의, 같은 공정으로, 같은 기술로 만들어지고 화학구조도 매우 비슷한 것이 적지 않습니다.

Q. 우리나라의 농산물 안전성 관리 체계는 어떻습니까?

A. 농림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는 농산물품질관리법에 의거, 안전성이 우려되는 농산물을 대상으로 주산단지, 집하장 등에서 시료를 수거하여 잔류농약, 중금속 등 유해물질의 잔류허용기준 초과여부를 조사하고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부적합 농산물은 출하연기, 용도전환, 폐기 등의 조치로 시중에 출하되지 않도록 사전 차단하고 있습니다. 또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식품위생법에 의거, 시중 유통 농산물 및 수입농산물에 대해 불량식품 단속 차원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농산물 안전성 조사 업무처리 체계도]

